

5·18 왜곡 대응하지 말란 건가...추경 예산 전액 미반영

시의회, 기념재단 사업비 본예산 반토막...시, 추경 편성 안해

5·18 기념재단,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등 사업 차질 우려

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이 요청한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를 전액 미반영했다.

극우 논객, 보수 유튜브 등이 5월을 왜곡·편향하는 계면을 일삼는 데다 SNS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왜곡 대응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5월 왜곡 대응 예산을 재단에 지원해오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시 민주인권평화화국에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왜곡대응 예산 6000만원, 오월길사업단 운영 예산 7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 예산에서 삭감돼 4650만원만 반영된 왜곡대응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광주시 예산담당관실은 해당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광주시에 같은 명목으로 재차 올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은 본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기조로 짜여져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2024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5·18기념재단에 교부할 1억 4000만원 중 66.7%를 감액하고 4650만원만 반영(2023년 12월 14일자 광주일보 7면)한 바 있다. 5·18기념

재단이 왜곡대응 사업을 통해 편법으로 오월길내해 설사(오월지기) 활동비 등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18기념재단은 기존 시비로 충당하던 왜곡·모니터링 예산을 국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월 예산 부족으로 왜곡 대응·모니터링 요원 1명과 재계약을 포기했으며 현재 부장급 1명, 팀장급 1명 2명만이 왜곡 대응 사업을 맡고 있다.

세부 사업 중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협력해 인터넷 뉴스 포털 댓글을 모니터링하는 비용 500만원(시비)은 국비로 전환했다. 이마저도 4~6월 3개월 동안만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각종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글과 댓글 등을 모니터링하는 비용 1000만원도 기존에는 시비로 충당했으나, 올해부터는 법률대응자금으로 쓰이던 국비를 끌어와 충당할 방침이다. 유튜브 영상을 AI 기술로 모니터링하는 사업 역시 자금 부족으로 5월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왜곡·편향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지원하는 '왜곡 편향 대응 콘텐츠 제작 사업'은 아예 중단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가짜이나 한성된 예산을 쪼개 왜곡 대응을 해 왔는데, 지자체마저 도와주지 않으니 사업 추진을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최근 지방원씨가 수감 중에도 5·18 왜곡 도서를 출판하고, 모 신문사에서 5·18을 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등 날이 갈수록 5월을 편향하려는 세력들의 왜곡 양상이 교묘해지는데 기존 사업조차 하나 돌지 않아 할 처지라 답답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평 황금박쥐상 보러 가자

함평·비대축제(26일~5월 6일) 개막을 앞두고 24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08년 30억원의 투입해 순금 162kg으로 제작한 함평 황금박쥐상은 현재 150억원의 가치로 추정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빛4호기 전력 공급 문제 발생...비상디젤발전기 가동

한빛원전 4호기(가압 경수로형·100만 kW급)가 최근 계획예방정비 중에 전력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돼 문제는 없었지만, 전력계통의 이상은 원전 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30분께 한빛원전 4호기에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차단기가 가동됐다.

원자로 안전모션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던 중 전원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LOV'(Lost Of Volt) 신호를 보였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됐다는 것이 한빛원전 측의 설명이다.

안전모션은 원자로 냉각계통에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장치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도 냉각계통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했다. 한빛원전측은 비상디젤발전기 이외에도 전력공급 장치가 추가로 다중화돼 있어 전원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지역민들은 사고 발생때마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수원과 한빛원전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빛원전 4호기는 부실공사로 무려 140개의 공극(구멍)이 발견돼 5년 동안 멈춰다 2022년 12월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1월 5일에도 한빛 3호기 일부 설비에 저전압 신호가 감지되면서 전력 차단기가 개방돼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가동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경남 합천 군민 광주 5·18 민주평화대행진 처음 참여한다

5·18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17년째 '일해공원 명칭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합천 군민들이 처음으로 광주 5·18 행사에 동참한다.

생명의숲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오는 5월 17일 회원 등 40여명과 함께 광주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주평화대행진은 1980년 5월 18일 당시 계엄령 선포에 맞서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된 가두행진을 금남로 일대에서 재현하는 행사다.

생명의숲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측은 지난 2004년 경남 합천군에서 개원한 '새천년 생명의 숲'이 2007년 전두환의 아호 일해(日海)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자 반발해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에서 광주를 찾아와 5·18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전두환씨의 고향인 합천에서 5·18기념행사를 열고 전씨 잔재 청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동안 광주에 머무르며 5·18전야제 행사에 동참하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해공원 명칭 논란을 광주시민과 공유하고 전두환 위상화 흔적 지우기 활동을 독려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창선 생명의숲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위원장은 "광주 시민들을 만나 5·18 아픔을 공유하고 일해공원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기상청, 호우긴급문자 서비스 5월중 실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5월 15일부터 읍·면·동 단위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발송 기준은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다. 또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시간당 72mm의 비가 내린 경우

에도 해당한다.

기상청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했고 올해 수도권에 정규운영을 시작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0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발생기준에 도달한 일수가 연평균 4.1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상청은 그동안 강한호우가 관측되면 지자체

나 언론과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한번에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함평군에 시간당 최대 7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 수문 관리인 한 명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당시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 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0년 사이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날이 연평균 12일(1972~82년)에서 21일(2013~22년)로 75% 증가했다.

/장혜원 기자 hey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